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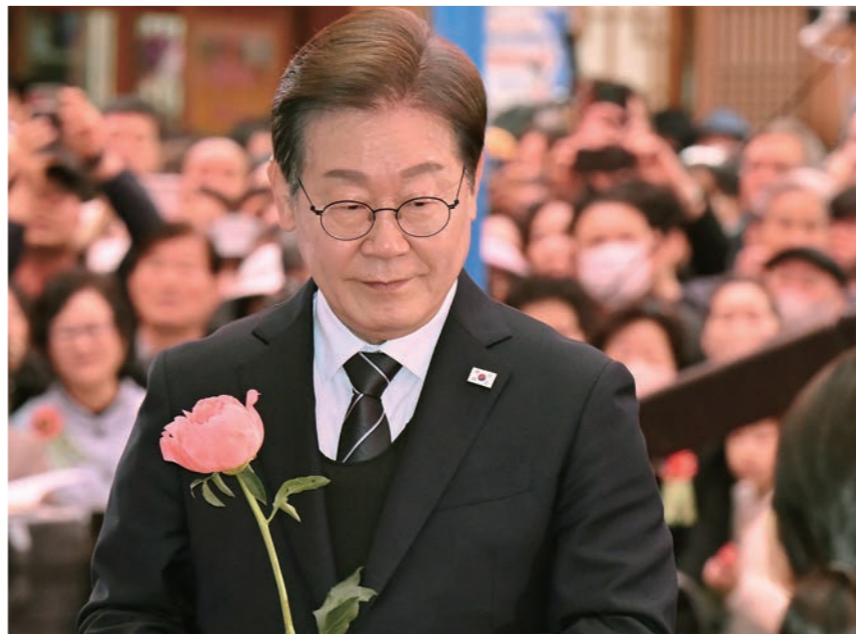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 '사법 리스크' 벗어

서울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 첫 공판 6월18일로 변경 李 후보 대선 출마 지장 없어... 與 "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한 5월15일 오후 2시에서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

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선일은 6월3일이다. 앞서 2일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소송 서류를 우편뿐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도 송달을 촉탁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정문화·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압박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7일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변경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 같은 후안무치 방탄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5월 1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일	대법원의 사건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
	재판부 배당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
7일	이재명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
	서울고법 형사7부, 공판기일 연기
15일	당초 첫 공판기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8일	첫 공판기일

연말뉴스

“직접 선출, 강한 대통령 필요”... 한덕수 ‘내각제 개헌’에 반기 든 보수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가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개헌 빅텐트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 선언에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기 3년 단축·삼권 분립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거국 통합 내각제·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수 우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국민 직접 선출 없는 내각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전면에 내걸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2년 차에 개헌안을 마련한 뒤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조기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며 그 즉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한 국가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거국 통합 내각제'와 '책임총리제'로 요약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통해 기존 정치 세력에 실망한 중도 및 합리적 보수, 나아가 일부 야권까지 아우르는 '개헌 빅텐트'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보수 빅텐트를 관련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 누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론자 회동을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진통' 내각제 두고 입장차 팽배 한덕수 '내각제 개헌' 공약에도 "대통령제 유지할 것"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 최근에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대철 전 현정회 회장·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이낙연 새 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개헌론자와 연이어 화동했다. 한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고 이상의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국민 논의에 맡기겠다는 처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보수 진영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내각제는 국민의 직접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될 때 정국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

는 권력 구조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 도입 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권력의 정당성과 책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내각제 개헌이 정당 대표 등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희석되고 정국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보수층을 대표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은 내각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각제, 이런 집정부제들이 좋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가 맞다"고 했다. 황교안 무소

속 대통령 예비후보도 언론에 "내각제 세력은 중국의 배후 조종을 받아 부정 선거를 수단으로 그들만의 세습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은 "유사 내각제 개헌에 완전히 반대한다"며 "권력구조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도 해야 하며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대선 경선 후보 또한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적합하지 않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각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들 의식 속에서 내각제는 '갈라먹기'라며 "국민은 직접 뽑은 대통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한 후보는 '내각제 추진'이 대통령제의 폐지라는 건 "오해"라며 "대통령 직접 선출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내각제는 개헌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 직선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내각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하고 보수 우파와 일부 진보 진영 모두에서 견제와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김 후보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줄곧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두고 양측 입장이 커 실질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민주 "상식적 결정" vs 국힘 "사법부 굴복"

'李 파기환송심 연기 법원 결정'에 양당 희비교차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는 희비가 교차한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 도 마찬가지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이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 연기 결정으로 이 후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 정경

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때라"고 경고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민주당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평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고 밝혔다.

또한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뒷안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장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훑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용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다시 새겨보는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박정용 지음

그의 재능과 격려와 다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울린다. 혹독한 시련에도 불타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섰던 불굴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 02 '바퀴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 06 가슴에 묻고 간 평생의 영원 통일
-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 03 모두 안 된다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 02 정치세신,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던졌던 비장한 출사표
-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싶었던 '성공한 노동자'
- 04 돈 액수의 자릿수보다 쓰임 가치를 청했던 '순손과' '구두쇠'
-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 01 정주영 · 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의 건
-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